

# “소상공인 지원 연계 허브기관 필요”

### 전북연구원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전방위적 지원해야”

전북도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집중·연계할 수 있는 허브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방향’을 주제로 한 이 슈브리핑을 통해 정책의 효율적 전달과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

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소상공인 실태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소상공인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소상공인이 소수 업종에 집중되어 과당경쟁으로 영입이익이 감소

하는 등 생존유지에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플랫폼의 기능과 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는 소상공인정책 정보 제공을 일원화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 종합 상담 및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과 지원서비스 공급자(정부기관-유관기관-민간기업)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상호간 업무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 김수는 박사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적시성, 연계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는 지난 1일 순창 장난감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노홍래 순창부군수, 신정 이 순창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희생자 유가족,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위령제는 동계교회 최영철 목사의 성경봉독과 장석사 청암님의 독경, 추도사, 조시낭독,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은 추념사를 통해 “어려운 속에서도 뜻있게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 정신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노홍래 순창 부군수는 “호국영령들의 뜨거웠던 자유수호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호국영령들의 영정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순창의 새로운 역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임학래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장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증진 분야 남원시 우수상

남원시가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2019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주민생활편익증진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고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 후원으로 마련됐다. 대상에서는 6개 분야를 심사해 상위 10%의 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 중 시는 주민생활편익증진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시는 북남원IC와 시내 연결 도로를 개설해 접근성을 향상했다. 백곡산 사거리 항교동 공동묘지를 이전해 남원관문 이미지를 제고했다. 도로변 불법으로 주차 중인 대형화물차 계도를 위해 화물공용차고지를 조성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국립전주박물관 9일

### 박물관과 함께하는 국악향연

국립전주박물관은 정기공연 ‘박물관과 함께하는 국악향연’의 11월 공연이 9일 오후 3시 전주박물관 본관 2층에서 진행된다. 판소리와 민요, 기악, 무용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우리 국악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국립민속국악원의 단원 11명이 참여해 무대를 꾸민다.

기악독주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해금의 김승정씨가 연주하고, 입세창 ‘춘향가 중 사랑가’를 고준석·박경민씨의 소리로 전한다. 이어 가야금병창 ‘화초타령’에는 양호숙씨,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에는 김승씨, 무용 ‘태평무’에는 임주희씨가 참여해 우리 소리와 전통무용의 참 맛을 알린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난 1일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관계자들이 한우고기나눔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우협회 정읍시지부 제공〉

## 한우고기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 한우협회 정읍시지부

### 복지단체·학교 440kg 전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는 지난 1일 지역 내 복지단체와 학교에 한우고기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정읍시지부는 이날 지역 내 복지단체 14개소에 한우고기 130kg(500만원 상당)과 7개 학교에 급식용 한우고기 310

kg(1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한우고기 소비 촉진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한우를 사랑해주는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 한우인들 스스로 제정한 날이다. 나희주 전국한우협회 전북 정읍시 지

부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정읍 한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며 “희원 모두가 정성스럽게 기른 고품질의 한우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 정읍시지부는 지역 내 소의계종을 위해 매년 꾸준히 한우고기를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수도료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 납기일 경과 1개월 이내 납부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익산시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수도 요금의 연체금 산정방식을 개설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3%의 고정 비율로 부과하던 연체금을 납기마감일 경과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일할 계산은 하루 연체가 됐을 경우 3%의 고정비율을 30분의 1로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9월 20일 ‘익산시 상수도 급수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10월 고지분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한다.

연체금 일할 계산 및 부과는 납기마감

일 1개월 이내만 적용된다.

1개월 이후는 종전처럼 3%의 고정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기 후 1개월까지 종전 납부방식에 따라 3%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납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을 다음번 부과액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문화재 안내판 이해하기 쉽게 바꿨어요

### 고창군, 선운사 대웅전 등 14곳 내내에도 30곳 정비키로

고창군이 낡고 오류가 있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고창군은 한자와 고문서 위주로 조성된 선운사 대웅전, 중산리 이팝나무 등 14개소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교체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30곳 이상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정비한 안내판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학생 등 자문단을 구성하고 안내판 문안을 감수해 왔다.

군은 이를 통해 ‘해설’ 위주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화·전설·특색한 가지 등을 넣어 흥미롭고 시간이 지나도 문화재에 대한 기억이 남을 수 있는 문화재 안내판이 되도록 했다.

중산리 이팝나무(사진)의 경우, 이팝나무 꽃이 만개한 사진을 넣어 천연기념물로서의 아름다운 진면목을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안내판 정비가 아닌, 꾸준하게 문구에 대한 자문단 협의를 거쳐 ‘우리’가 힘을 합쳐 만든 안내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